

전국 물류산업 거점기지화 기대

지난해 국내 3대 최다 일자리 창출 기업 '쿠팡' 전북에 등지

쿠팡(주)은 오는 2024년까지 완주테크노밸리2산단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건립한다.

▲**쿠팡(주) 투자의 의미 및 가치**
쿠팡(주)은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즉각적이고 유연하게 만족시킬 수 있도록 자기물류센터를 구축 운영해 배송, 보관, 하역, 포장, 배송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물류 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쿠팡(주)은 대한민국 최대 이커머스(E-Commerce) 기업 중 하나로 2020년 기준 매출액 약 13조원으로 지난 2019년 7.1조원 대비 약 94% 증가했다.

또한, 쿠팡(주)의 모회사인 Coupang, Inc.의 올해 3월 11일 뉴욕증시(NYSE) 상장 등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기업이다.

▲**업종 현황**

국내 이커머스 시장규모는 지난 2019년말 기준 약 144조원이고 2024년까지 약 644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쿠팡(주)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거래 증가와 로켓배송, 새벽배송, 로켓프레시 등 혁신적인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경험을 대폭 개선해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투자 배경**

쿠팡(주)은 전북지역에 투자하게 된 이유를 전북지역이 쿠팡(주)의 개선된 혁신 배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국 단위 물류시스템 구축 계획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쿠팡(주)은 이번에 건립되는 물류센터를 전북지역뿐만 아니라 중부권·남부권까지 물류를 수렴하고, 향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시 중요한 거점으로 활용 예정이다.

특히, 물류센터 건립을 통해 배송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를 활용한 IT·유통산업의 융복합에 따른 상품 관리·배송 동선 최적화 등을 구현함으로써 첨단 물류시스템 실현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투자유치 노력**

전북도와 완주군, 지역정치권은 쿠팡(주) 투자유치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했다.

특히,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처는 쿠팡(주) 유치를 위해 1년여간 기업 임원진과 실무진을 수차례 방문, 전북도만의 인센티브와 투자시 장점을 설명했고, 도 투자금융과는 산단에 전자상거래업이 입주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특례지구 지정과 공장설립 원스톱 지원을 검토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했다.

쿠팡(주) 투자유치의 주역인 김용삼도 기업유치팀장은 "쿠팡(주) 유치는 기업이 올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

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어떻게든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입념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밝혔다.

▲**기대효과**

전북도는 이번 투자로 유사업종 집적 등 관련 산업이 활성화 돼 전북이 전국 물류산업의 거점기지화 될 수 있고, 이커머스 앵커기업 입주로 인한 지역이미지 상승으로 타 기업 유치를 위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 특산품 관련 기업, 소상공인 등이 쿠팡과의 직접거래는 물론, 물류거점을 활용한 간접 판매 활성화로 지역업체의 매출과 영업 이익이 증대할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인근 상권형성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는 물론, 간선·용달차량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 영세 화물운송업자에 대한 일자리 추가 제공 등 부수적 효과도 기대된다.

이외에도 물류센터 운영에 따른 부속 자재나 운송 장비 등에 대한 수요로 실제 물류센터 운영과정에서의 부수적 파급효과는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쿠팡(주)은 2020년 9월 기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에 이어 3번째로 고용창출을 많이 했고(4만3,171명), 앞으로도 지속적인 채용과 투자를 통해 양질의 근로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주한독일대사관 아르네 퀴퍼 경제부 차관, 알렉산더 렌너 과학기술부 차관관은 지난 26일 전북도청을 방문해 한민회 전북도 대외협력국장 및 면담을 갖고, 해상풍력과 탄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북과 독일 간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도-독일,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논의

주한독일대사관,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서남권 해상풍력 사업 계획 청취

한국형 그린뉴딜 핵심축인 전북의 해상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청취를 위해 지난 26일 주한독일대사관 관계자가 전북을 방문했다.

주한독일대사관 아르네 퀴퍼 경제부 차관, 알렉산더 렌너 과학기술부 차관은 이날 도청을 방문해 한민회 전북도 대외협력국장 및 면담을 갖고, 해상풍력과 탄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북과 독일 간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한민회 대외협력국장 퀴퍼 차관은 세계적인 이상 기후 변화, 코로나19가 불러온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전북과 독일이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에 대해 정책 경험, 사례 교류 등을 통해 국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

에너지 생산 중 35%에 해당하는 2,287억kWh에 달하며, 이중 풍력발전(onsshore, offshore) 생산량이 1,133억 kWh로 비율이 가장 높다.

전기생산 부문에서 1990년 3.6%를 차지하던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2018년 35.2%로 약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퀴퍼 차관은 "신재생에너지 선도국인 독일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주민의 수용성 확보"임을 언급하며 "이 점에서 후발주자인 한국의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간협의회 의 성공적 운영은 그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면담 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 및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 소개발표와 독일의 재생에너지 추진상황 공유 및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아르네 퀴퍼 차관은 "지난 2011년

한국 정부의 첫 로드맵 구축 이후 10년간 답보 상태였던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된 것은 민·관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합의에 도달하려는 상호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북도와 이미 활발하게 진행 중인 탄소분야 기술·연구 협력을 넘어,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독일 연방정부 및 지자체와 성공적인 상상 모델을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민회 도 대외협력국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양 지역의 재생에너지 사업과 추진상황에 대한 실무자간 의견 공유,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전북도 탄소산업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분야 또한 활발한 국제교류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축산농가 경영안정 위해 사료 구매자금 339억원 지원

해당 읍면동·시·군에 신청

전북도가 축산물 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한다.

도는 사료의 주원료인 옥수수, 대두박 등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배합사료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 구매자금 339억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축산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이며, 축산업을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 등록 후 신청할 수 있다.

우선 지원대상 농가는 영세농가(소

16마리, 돼지 333마리, 양계 1만마리, 오리 1,666마리 미만),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농가, 축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 농가, 동물복지형 축산농가 순이다.

사료 구매자금 지원조건은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 상환으로, 신규 사료구매 대금과 기존 외상금액의 상환 용도로 지원된다.

농가당 지원 한도액은 한우, 젓소, 돼지, 닭, 오리는 6억원, 기타 축종은 9,000만원이며, AI 피해 농가는 농가당 지원한도의 1.5배까지 가능해 최대 9억원 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 단가에 사육 마리수를 곱해 지원금액이 산정된다. /유호상 기자

지원단가는 마리당 한우우 136만원, 낙농 260만원, 양돈 30만원, 양계 1만 2,000원, 오리 1만9,000원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해당 읍면동 및 시·군에 신청하면 되고, 시·군에서는 사육두수, 대출잔액, 피해여부 등을 검토해 지원 대상자로 확정하면, 농가 사료구매자금 선정·추천서를 발급받아 지역 농·축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축산농가 사료구매 자금 저리 융자지원이 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경감해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무료 검사·방역수칙 준수 홍보

전북도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외국인이 농촌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대비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도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재 고용 허가제나 일용직 형태로 고용 중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코로나19 무료 검

사와 방역 수칙 사항을 준수토록 안내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법무부의 불법체류 단속도 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검사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법무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시·군

및 유관기관, 농업인단체 등에 15개 언어로 된 안내문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자 무료 진단검사 참여와 농작업 시 방역 수칙을 준수토록 홍보했다.

또한, 지역농협을 통한 농업인 대상 SMS 문자를 발송해 농번기를 맞아, 고용 중인 외국인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해 주고, 농작업 시 발열체크,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안내했다. /유호상 기자

모집 전주교육대학교 우석대 원광대 군산대 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상담**

스피치·긴장해소·리더쉽·웃음코칭

스피치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복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욱입니다. 누구나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 스피치자격시험 감정위원장
- 한국스피치·웅변협회 전북회장
- 전북대학교원 및 가린, 단재 특강교수
- KIN TV 아침마당, MBC TV, JTV, TBN 출연 및 강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 평생교육사 ○ 심리상담사
- 전주매일 부사장
- 저서 '365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새롭고 멋진 스피치 도우주' 등

<전북도내 각 지역별 모집>

학교명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 긴장해소, 스피치웃음치료 (주, 야간)	전주, 임실, 완주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 (주, 야간)	전주, 완주, 진안
원광대학교(익산)	스피치&긴장해소 (주, 야간)	익산, 논산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과 리더쉽, 스피치지도사(자격증)	군산, 서원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 고급, 자격증) (스피치, 긴장해소, 웃음치료 등) (주, 야간)	정읍, 고창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코칭(야간)(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 야)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